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탄절 후 제1주/송년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17. 만백성 기뻐하여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우리 삶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갈짓자 행보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은 말없이 눈물을 닦아주셨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일어서겠습니다. 안일과 무기력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겠습니다. 주님의 일터,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주님의 평화를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심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6:33	인도자
♠ 교 독 문	45. 요한복음 3장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II. 이용한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96.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함께
성경봉독	눅1:26-38	인도자
	마2:13-23	최성애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은혜를 받은 자여	김재흥 목사
	나사렛 사람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48. 이 세상 끝날까지	다함께
헌금봉헌	<성가대 중창단>.....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교만과 두려움과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사십시오. 만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기쁨과 평화의 선물을 안겨주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몫이 크든 작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삶이 험겨워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둠이 짙어갈 때 별들이 더욱 반짝이듯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한 점 불빛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여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성탄절의 종소리 되기	신명기강해(26)
“예수 나심 줄을씨고!”	기도 : 안경숙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윤석철 장로	방문성 권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인걸	오진훈	임창선	허정윤	정경례
	헌금위원	이용한	방문성	김중수	구성실	이기분	박혜경

햇살 속에 반짝이는 저 몸짓들

시장에서 생선 장수를 하는 여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꽃을 파는 정원사의 집에 손님으로 갔다. 그녀의 손에는 생선을 다 팔고 난 빈 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꽃이 있는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는 꽃향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뭔가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했다. 여주인이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 왜 그렇게 옆치락뒤치락하는 거죠?”

“글세,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꽃향기가 잠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저, 미안하지만 제 생선 그릇 좀 가져다주시겠어요?”

여주인이 생선 그릇을 가져다주자, 그녀는 생선 그릇에 남아 있던 비린내 나는 물을 꽃 위에 뿌려 사방에서 생선 냄새가 풍기게 했다. 그러고는 잠자리에 눕더니, 이내 잠에 푹아떨어졌다.

사람이 타성(惰性)에 젖는다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 타성이란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피하지 않아 굳어져 버린 습성을 가리킨다. 생선 비린내에 젖어 사는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타성에 물들면, 창조적인 삶을 꽃피울 수 없다. 삶의 나날은 질퍽거리는 욕망의 비린내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왜곡된 삶에서 풍기는 악취인지도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타성에 물들어 사는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고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처럼 현실에 안주해버린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두려운 것이다.

신앙인이라는 명찰을 착용하고 살면서도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시도하지 못할 때, 그의 삶은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퇴행의 길을 걷게 된다. 어떤 시인이 강가에 나가 물고기를 관찰하면서 했다는 말이 떠오른다. “지느러미가 여울을 거슬러 올라가도 과거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인의 예민한 통찰은 무엇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일까. 잠이 깰 때마다 우리의 이마에 와 닿는 새벽빛은 날마다 새로운데, 우리는 오늘 ‘나는 어디로 가는가?’를 묻고 살던가. 신앙인은 영원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순례자이다. 하지만 무거운 배낭을 메고 길 떠나는 여행자는 많지만 ‘순례자’는 적은 것 같다. 순례자는 속진(俗塵)을 털어내고 영원의 빛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타인과 경쟁하는 더러운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가

난한 마음을 절대 신성의 빛으로 그득 채우려는 사람이다. 만족을 모르는 갈망으로 괴로워하기를 멈추고 금욕(禁慾)의 황홀을 즐기려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도상(途上)의 존재로 길 위에 있지만, 진정한 순례자는 그 걸음걸음마다 자기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의 임재를 매순간 자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염려하지도 않는다.

똑딱거리는 시간의 자장(磁場)에 묶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현재를 살 수 있다. 우리가 물질계(物質界)에 대해 깨어 있고 영계(靈界)에 대해 잠들어 있는 한 우리는 그 현재를 누리는 달콤한 맛을 알 수 없다. 어떤 영적 스승은 신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영원히 달콤한 것’이라고 했다. ‘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예수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달콤한 맛을 알았던 분이 아닐까. 하늘 나라의 감미로운 음식을 맛본 예수는 온갖 조미료로 맛을 낸 세상의 음식을 먹는 것과는 다른 미각(味覺)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탁발 수도자들처럼 배가 고파 밀 이삭을 훑어먹는 제자들과 더불어 자발적 가난을 살면서도 온 우주가 당신의 것인 양 사셨던 예수의 그 부요를, 오늘 우리가 눈치 채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만아드님이 일으켜 세운 성가족(聖家族)의 일원은 아닐 것이다.

진흙과 물이 예수의 숨결을 먹으면,
날개를 펼치고 새가 되어 날아간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대의 찬양은
물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대 몸의 숨결이다.
그대 가슴의 성실(誠實)로/숨을 쉬어,
그대 몸의 숨결로
낙원(樂園)의 새가 되게 하라.
—잘라루딘 루미

루미의 이 잠언에서 ‘예수의 숨결’은 단순한 상징으로 읽히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예수의 숨결’을 호흡하고 산다. 예수의 이름을 가만히 속으로 부를 때마다, 예수의 숨결을 천천히 호흡할 때마다 내 안에 그분이 살아 있음을 느낀다. 우리가 들숨날숨을 쉴 때마다 ‘예수의 숨결’을 불어넣는다면, ‘낙원의 새’가 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으리라. (고진하)

고구마 복음

성탄 이브, 싸락눈 치는 읍내 사거리에
고구마 익는 내가 캐럴을 타고 진동한다.
드럼통 안 이글거리는 열기에도
연신 된 입김을 쏘는 청년이 굽는 것이다.
날 선 냉기에 더욱 푸르러진 푸성귀,
비린내마저 냉동되어 버리는 냉동 갈치,
바람 스쳐 더욱 오그라드는 끝물 사과며
홍시를 파는 좌판들의 코도 발췌거릴 무렵,
문득 청년은 양푼에 고구마를 가득 꺼내
아이쿠 뜨거워, 손을 털며
아이쿠 뜨거워, 손을 털며
어찌려고 하나씩 죄다 나누어준다.
사거리를 종종 치며 건너는 촌로들은
멈칫멈칫 돌아보며 얼굴이 환해지는데,
구두를 닦는 노인, 가족배를 미는 총각까지
그것 하나씩 두 손으로 받아 들고
그것 함부로 꺾질을 까지도 못하고
무슨 복음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감싸니,
맨날 도회지의 작은택 가기에 바쁜
하느님도 이 광경을 어떻게 돌아보았는지
때마침 싸락눈의 마음을 돌려선
날 저물며 함박눈으로 펑펑 바꾸더라니!(고재중)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종훈 안경숙 김훈동 유경순 김준호 곽혜자 정완수 김재광 김정길
 최숙화 이광용 형인순 박영숙 배삼순 이유선 방극숙 한인철 조윤숙
 최인환 전영순

월정헌금:

윤성종 김윤정 박석희 조항미 최윤희 박준희 이기분 조병주 김성자
 최동운 박찬정 임 영 정경례 이증자 김승현 김수진

감사헌금:

윤정덕 구성실 신윤정 김명순 김정섭 최종원 김용진 박효선 박시내
 배삼순 이수진 김태길 무명1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심	심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송년주일** : 우여곡절이 많은 세월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이 믿음과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12월 정기임원회가 열립니다.
3. **신천임원교육** : 당회에서 임원(집사, 권사)으로 새롭게 천거되신 분들은 중구용산지방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때 - 12월 27일~28일 오후 6시 30분 / 곳 - 상동교회 7층 예배실
4. **송구영신예배** : 12월 31일(금) 오후 11시부터 송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로 한 해를 돌아보고, 소망으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임원헌신예배** : 새해 첫 주(1월 2일) 오후집회는 임원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일꾼으로 세움을 입은 모든 이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6. **새해감사예배** : 2005년 새해감사예배는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는 없습니다.
7. **교사모집** : 새해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주시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8. **신앙실천** :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 삶에서 털어내야 할 것을 털어내고, 붙잡아야 할 것은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1월	영접 : 조병무 이인웅 김용길 광혜자 허정윤 박미영
	헌금 : 윤정덕 김준호 안길상 임창선 김성자 송양진

* 헌화 : 김희우 사모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